김영삼 목사는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풀러신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현재는
성남에 있는 금광교회 담임목사로 사무하고 있다.

건강한 교회를 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전통 교회가 제자훈련 하는 교회로 방향 전환을 하기란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가지고 있을수록 쉽지 않다. 그럼에도 금광교회는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그리고 부교역자들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가히 개혁이라고 할 만한 행보를 이뤄가고 있다.

"금광교회! 원로목사님도 담임목사님도 아주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교회 찾기 힘들죠."

"청소년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회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비전들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안 정말 좋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더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모두 금광교회에서 사역했던 교역자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다. 교역자들이 떠나기를 아쉬워하는 교회, 함께 사역하던 교역자들로부터 존경받은 담임목사가 있는 교회라면 일단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김영삼 목사와 금광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1973년 선병문 목사(원로목사)는 7명의 성도들과 함께 금광교회를 개척했다. 그 시작은 하루하루를 벌어 먹고사는 삶에 지쳐있는 성남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였다. 그 세월이 33년이다.

'주는 교회 베푸는 성도'라는 선 목사가 세운 목회 모토처럼, 금광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과 복음을 아낌없이 퍼주는 일들을 감당해 왔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교회 칭찬이 자자하다. 또한 설립 30주년을 기념으로 개척한 광주 금광교회까지 모두 4차례 부교역자들을 통해 분립개척도 하였다. 지금은 그 교회들도 인근 지역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

그러나 은퇴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선병문 목사와 교회는 하나의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30년 뒤에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달라진 시대와 환경에 알맞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고민이었다. 문제는 차세대 리더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였다.

마침 교회 안에서 한 교역자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었다. 당시 7년 동안 청년부와 목양을 맡아 사역하던 김영삼 목사가 바로 그이다. 교회는 김 목사를 후임으로 내정하고 더 넓은 목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미국 유학을 지원하였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김 목사는 2004년 9월부터 1년간의 공동목회 기간을 거쳐 2005년 10월에 위임받고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

금광교회는 모범적인 세대교체란 무엇인지, 또한 공유와 나눔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현장이다. 그러나 〈디사이플〉이 금광교회를 주목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전통적인 예배 중심 교회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소그룹 중심 교회로 변화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사역을 통해 터득한 한 사람 철학

김영삼 목사가 담임목사로 내정되기까지만 해도 그의 주된 사역은 대학청년부 사역이었다. 금광교회는 김 목사의 어떤 점을 보고 파격적으로 담임목사로 청빙한 것일까? 사실 전도사 사역을 하던 시절, 김 목사를 아는 사람들은 김 목사가 전통 교회에 담임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왜냐하면 김 목사의 비전은 평생 청소년 사역자로서 건강한 담임목사를 도와 팀 목회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금광교회의 오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영삼 목사 개인의 인생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부모 없이 외롭게 보낸 김 목사는 사랑이라는 따뜻한 감정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떠돌이처럼 지냈습니다. 초등학교만 다섯 곳을 옮겨 다녔고, 불교 집안인 탓에 절에서 잠시 살기도 했지요. 외롭게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 대화가 많이 없어 내성적인 소년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야 웃기 시작했으니까요.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김 목사는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피부로 깨달았다. 청소년 시절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자신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고민은 쉬 사라지지 않았고,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과 사역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로 진학하기에 이르렀다. 목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청소년 사역을 위해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신학교에 입학한 후 김 목사는 88년부터 손종국, 홍정기 목사와 함께 청소년 교육선교회를 섬기며 몇몇 지역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마다 양적 질적 부흥을 주셨습니다"고 회고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지만 그에게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목회자 중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열정은 생각만 품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열정이 있다면, 그 아이들과 뒹굴고 생명을 걸게 됩니다. 단순히 설교 잘하고, 프로그램 잘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원리는 청소년 사역이나 장년 사역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선병문 원로목사는 김 목사에게서 한 영혼에 목숨을 거는 목자의 심장을 보았다. 영혼을 위해 온몸을 불태우는 그 열정을 말이다. 그래서 그가 차세대 리더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 철학이, 목회의 대상과 방법, 스타일을 넘어서 목회의 근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다.

살아있는 예배와 제자훈련을 발견하다

청소년 사역을 통해 성공적인 사역을 경험한 김 목사는 장년 목회도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서 자신이 잘못 생각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자훈련으로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다락방에서의 말씀 중심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목회현장은 김 목사의 가슴을 또다시 뛰게 만들었다.

"금광교회는 전형적인 전통 교회였기 때문에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 발휘해도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남가주사랑의교회는 정말 훈련으로 깨어 있는 교회였고, 오정현 목사님은 열정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두 가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자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의 영광이었습니다. 단기간 투어로는 불가능한 배움이었죠. 사역을 하면서 내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우연히 읽게 된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을 통해서 평범한 일에 애정을 가지면 그 일을 비범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목양 사역을 하더라도 한국 교회 안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깨달음은 김 목사를 평범한 교구 담당 목사의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게 했다. 새벽마다 당시 담당했던 얼바인 지역의 다락방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과를 시작했다. 교구 전체를 위한 기도는 매일 40분이 소요되었다. 기도시간에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교적부를 확인하며 전화하고 심방했다.

기도시간에 이름이 떠오르지 않은 것은 개인적 접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심방을 갈 때면 항상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근황을 설명했다. 또한 사진과 함께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지금은 순장이 된 한 집사님 가정은 지금도 저를 잊지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제가 찍어서 올린 사진과 글들을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어 걸어 놓았답니다. 어른들에게도 감동이 있는 참된 목양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목양이 바탕이 되어야 주일에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 사회는 영적으로 메마르기 쉬운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남가주사랑의교회의 주일예배는 은혜로 넘쳐났다. 그 배경에는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시달리다가 찾아온 교인들에게 찬양 한 곡이라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예배 인도자가 있었다. 가까이에서 경험한 오정현 목사의 목회는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자가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회학 교과서와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심방하고 격려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도 진정한 삶의 변화는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변화의 핵심은 제자훈련에 있었다. 목양 사역과 함께 경험하게 된 제자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변화란 설교와 심방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번은 갱단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저의 제자반에 들어왔습니다. 변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마약까지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한 과 한 과가 진행되어 가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약을 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깨어질 위기에 있었던 가정도 회복이 되었다. 또한 교회에서 사역자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의 3년 사역은 김 목사가 청소년 사역에서 체득한 한 사람 철학 위에 장년 목회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도구를 갖출 수 있게 했다. 그것은 영감 있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감각과 제자훈련이라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의 3년 사역은
김 목사가 청소년 사역에서 체득한 한 사람 철학 위에
장년 목회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도구를
갖출 수 있게 했다. 그것은 영감 있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감각과
제자훈련이라는 전략이었다.

아슬아슬했던 제자훈련 1기

3년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금광교회로 돌아온 김 목사는 1년간 공동목회 기간을 가진 다음 담임목회를 시작했다. 이미 교회에 대한 토양분석을 마친 상태로 담임목회를 시작한 것이다.

3년간 교회를 떠나 있었던 기간은 어떻게 하면 이미 잘 갖추어진 금광교회의 하드웨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심을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 고민을 해결한 키는 제자훈련이었다. 그리고 사역의 부팅(Booting)은 21명의 장로들을 대상으로 하는 1기 제자훈련이었다.

"어떻게 하면 전통 교회를 제자훈련하는 교회로 전환하느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디사이플〉과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신부산교회 조정희 목사님의 조언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 장로님들과 시작하는 제자훈련 1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두 반으로 나누어서 바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와 달리, 김 목사는 기본적인 양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자훈련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김영삼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는 이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로들과 온 교회가 김 목사의 7년의 부교역자 생활 동안 그를 경험해 알고 있었고, 미국생활 3년간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했던 것이 그 바탕이 되었다.

교회를 전혀 모르고 부임했을 때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김 목사와 같이 이미 교회를 잘 알고 있는 경우의 장점은 제자훈련을 바로 도입하여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장로들은 김 목사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김 목사를 받아들일 때는 앞으로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로 시작한 1기 제자훈련은 100% 다 펼쳐놓지 못한 제자훈련이 되고 말았다. 토양분석도 잘 되어 있었고, 인격적인 인정도 받았던 김 목사가 부딪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막상 제자훈련 교재를 펴고 과를 시작했지만, 진행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훈련생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일부 문제들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가져온 신앙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교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그동안 소그룹에서 귀납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만 했다. 결국 1년 동안 장로님들과 신앙의 각 영역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간격을 좁히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러나 수확이 없지는 않았다. 젊은 사람들이 훈련을 하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장로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었다. 훈련을 시작했던 부임 초기 한 달에 한 번씩은 선병문 원로목사가 설교를 담당했다. 그때마다 그는 후임 목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30년 이상 금광교회를 이끌어 온 원로목사라면 교회의 변화를 모든 면에서 환영할 수는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선 목사는 끝까지 김영삼 목사의 지원병으로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10년간 금광교회를 알아왔더라도 30년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원로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파급효과는 정말 컸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제자훈련 목회가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셨습니다. 제가 한다고 했기에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훈련 철학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저를 신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반화하기는 힘든 몇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일반적인 전통 교회와 달리 금광교회의 담임목사는 기존 평신도 리더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인격이 검증된 목회자였고, 원로목사의 전폭적인 지지도 함께했다는 점이다. 결국 제자훈련 1기는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면서, '금광교회는 제자훈련 하는 교회로 간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1기 제자훈련을 받은 일부 장로들은 제자훈련 철학의 철저한 동조자로 변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한 장로는 그가 가진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반에서 함께 전도 분야를 담당하는 동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1세대 장로들과 2세대 담임목사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갔다.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진 제자훈련

김영삼 목사는 1기 제자훈련을 장로들과 하고, 2기 제자훈련은 안수집사들과 함께했다. 3기부터 7명의 부교역자들에게 제자훈련을 위임하고, 김 목사는 사역훈련에 집중했다. 1천 명이 넘는 교회를 소그룹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5년 안에 300명의 리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위임하게 된 것은 단순히 현장의 요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김 목사의 사역철학인 공유와 나눔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다. 부교역자 시절부터 김 목사는 사역하면서 좋은 열매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동료 교역자들과 항상 나누어왔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사역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제자훈련은 특히 더 그러합니다. 자칫하면 일반 성경공부와 차별성 없이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거나, 이벤트성 모임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CAL세미나를 수료한 많은 목회자들을 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CAL세미나에 가서 도전은 받아요. 하지만 문제는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 수와 그 성공률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서 동기부여는 되어 있지만, 경험이 없어서 포기하고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 노하우를 나누게 되면 제자훈련을 직접 해보지 않았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귀납적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평신도 리더를 필요한 숫자만큼 배출하기 위해서는 같은 철학으로 무장한 동역자들이 필수였다. 그래서 김 목사는 자신이 1기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CAL세미나를 이수하지 않은 모든 부교역자들이 CAL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했다. 2008년 3기부터 제자반을 담당한 도상환 목사는 김영삼 목사의 공유와 나눔의 목회를 이렇게 평가한다.

"김영삼 목사님은 직접 만드신 훈련자 오리엔테이션 매뉴얼을 이용해서 부교역자들과 함께 제자훈련 워크숍을 가집니다. 그 워크숍은 금광교회의 제자훈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첫 모임을 어떻게

김영삼 목사는 1기 제자훈련을 장로들과 하고,
2기 제자훈련은 안수집사들과 함께했다.
이 후에는 사역훈련에 집중했다.
5년 안에 300명의 리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행하고, 과제는 어느 선까지 나누어 줄 것인지, 찬양을 어떻게 선곡하고 활용할 것인지, 주간계획서는 왜 중요한지, 하물며 간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것들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자훈련 전체를 다룹니다. 이러한 모임이 가능한 것은 김영삼 목사님의 공유의 마인드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에게도 항상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하라고 하십니다.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금광교회는 자체적으로 제자훈련 체험학교를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김영삼 목사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제공하는 체험학교 프로그램과 비할 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CAL세미나에도 참석시키지 않고 부교역자에게 제자훈련을 맡기는 일부 교회들에 비교하면 이러한 금광교회의 노력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김 목사 특유의 꼼꼼함은 부교역자들의 제자훈련에도 전달된다. 각 과에서 핵심은 무엇인지, 어떤 생활숙제가 좋은 반응이 있는지, 생활숙제의 유익과 의미

는 무엇인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이 워크숍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공식적인 워크숍 시간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제자훈련 코칭도 무시 못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김 목사는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깨우친 제자훈련 목회철학과 노하우를 금광교회 전체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부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워크숍 시간을 체계화하고 정형화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 소그룹 인도자로
다시 태어난 구역장들을 통해 구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만만치 않다.

열매 하나: 서서히, 그러나 확연히 드러나는 변화

원로목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김영삼 목사의 제자훈련 노하우, 그리고 부교역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훈련의 열매들은 어떠할지 궁금하다. 먼저 성도들의 삶에 일어난 삶의 변화에서 그 열매의 맛을 보자. 그 변화의 주인공들 중 한 사람인 김성열 집사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는 잘 다녔지만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20대에 성남에 오게 되면서 1990년부터 금광교회를 다녔습니다. 금광교회에서 자란 아내에게 도전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김영삼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시기 전 청년부를 섬기실 때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으로 눈물로 기도도 했었죠. 그러나 열심 있는 아내와는 달리 여전히 주일 출석만 하는 미지근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음에도 김 집사의 신앙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성장해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감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3기 제자훈련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듣고, 주의의 권고를 받은 김 집사는 지원서를 제출하고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김 집사는 생각지도 못했던 훈련의 강도에 포기하고 싶기만 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느낌도 없었다. 훈련 중에 태어난 둘째 아이도 좋은 핑계거리였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아내조차 훈련을 계속하기를 원했고, 제자반의 여러 지체들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기를 청했다.

김 집사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던 동일한 시기에 주위 사람들과 김 집사의 아내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김성열 집사를 보고 있었다. 서서히 변화되는 중이어서 그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기도문 한 줄도 스스로 작성하지 못하던 김 집사가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중등부 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묻혀있던 악기를 다루는 달란트를 이용해서 찬양단에서 베이스 기타리스트로 봉사를 하고 있다.

금광교회 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제자훈련을 통한 삶의 변화는 제자훈련 수료와 함께 갖는 가족 엠티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도상환 목사의 말이다.

"한 해 동안 훈련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아내들,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떠나는 엠티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반 남자 집사님들은 하루 종일 가족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가족들의 풍성한 삶의 변화가 확인됩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변화가 진행 중인 남편 그리고 아빠들은 실제로 삶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티는 그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일 뿐이죠."

열매 둘: 두 차례에 걸친 대수술 끝에 탄생한 소그룹

훈련을 통해 소그룹 인도자로 다시 태어난 구역장들을 통해 구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만만치 않다. 어떻게 기존의 구역 모임을 새로운 소그룹으로 변화시켰는지 살펴보자.

소그룹 운영 방법을 변화시키다

김영삼 목사는 금광교회에 부임하고 두 번에 걸쳐 소그룹 대수술을 감행했다. 첫 번째 변화는 소그룹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많은 전통 교회가 그러하듯이 금광교회도 구역장을 중심으로하는 성경공부 모임이 있었다. 선병문 원로목사가 직접 구역공과를 집필했는데, 구역장은 교재를 들고 가서 구역원들에게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실시하면서 구역장 모임부터 소그룹 형태로 바꾸고, 주일 설교를 사용하여 나눔을 가지게 했다. 구역장들이 먼저 소그룹의 역동성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 목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거치면서 소그룹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아직 소그룹을 인도해 보지 못한 구역장들에게 소그룹을 먼저 경험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모임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시간을 줄이고, 소그룹 중심으로 모여서로 나누는 것을 주로 합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유모 역할을 하는 구역장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진행형태만 조금 바뀌었는데도 구역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전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수동적이던 종전 모임과 달리, 모두가 능동적으로 변한 것이다.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나누면서 모임 참여도도 점점 높아졌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변화만으로 김 목사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때까지 소그룹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여성 구역뿐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구역이 여성 중심으로 낮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훈련받은 남성들이 인도할 마땅한 남성 구역이 없었던 것이다.

"제가 여자들만 데리고 목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역장 모임에 항상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당회에서 회의를 하고 정책을 세우는 것은 남자들하고만 하고, 정말 중요한 공동체 사역은 모두 여자들만 데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일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훈련받은 남성들이 뛸 사역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부부구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그러나 부부구역을 편성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부

성남은 서울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쫓겨난 철거민들, 우상들이 득실대던 곳이었다.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들로 인해 변화되고 있다.
그 선봉에 금광교회가 있다.

부가 함께 모임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목사는 또 한 차례의 대수술을 강행했다. 금요기도회를 수요일로 옮겨서 '수요지성소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기도회 시간을 부부구역 모임으로 편성한 것이다.

사실 금광교회가 금요일을 부부구역 모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금광교회의 금요기도회는 은혜롭다는 소문이 이웃 교회들에까지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아주 강한 목회 사역의 에너지원 역할을 감당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가져온 수요예배를 없애야 했으니 그 부담은 만만치 않았다.

"우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금요기도회가 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통계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금요기도회와 수요예배 참석 인원이 얼마인지를 설명하고, 금요일을 부부구역모임으로 조정을 할 경우 가능한 모임 인원을 제시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편성한 부부구역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소그룹 운영 방법을 조정한 이후, 참여율이 40% 정도에 머물던 구역 모임이 부부구역으로 편성하고 나서 63%의 소그룹 참여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사실 소그룹 사역에 집중하는 셀교회나 가정교회를 제외하고는 보기 힘든 참여율이다. 그러나 아직 만족하기는 이르다. 금광교회는 소그룹 참여도를 8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성도가 유익을 누릴 것이라는 김영삼 목사의 예상이 적중했다. 남성 소그룹 모임이 아예 존재하지 않던 금광교회가 부부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구역 모임이 활성화됐다. 남편을 동참시키지 못해서 싱글 구역에 참석하던 성도들도 부부구역을 통해 흘러나오는 입소문을 전해 듣고, 계속해서 부부구역으로 편성시켜 달라는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참석률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모임의 질 또한 현격하게 높아졌다. 예배만 드리고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던 연약한 성도들이 설교를 삶에 적용하는 나눔을 통해서 이전에 맛보지 못하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역동적인 소그룹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다

금광교회 구역 모임이 추구하는 것은 단지 전교인의 참석에만 있지 않다. 다음 단계의 변화가 남아 있다. 그 변화는 김영삼 목사가 추구하는 제자훈련 목회의 방향성과도 관련 있다. 김 목사의 고민을 들어보자.

"제자훈련을 하면서 재생산하는 리더를 만들 것인가, 양육을 잘하는 리더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자훈련 철학은 재생산입니다. 대형 교회 소그룹 리더들은 양육하고 돌보는 데는 탁월한데, 전도와 재생산에는 약한 것을 봅니다. 금광교회가 추구하는 구조는 교회에서 사람을 소그룹으로 보내서 세우는 구조가 아니라, 소그룹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새신자가 생명력을 얻게 되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구조입니다. 교회 단위의 전도집회가 따로 필요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전도집회를 따로 하지 않아도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어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면, 자연스럽게 재생산이 일어날 것이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 하는 교회라면 전도집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금광교회는 제자훈련을 마치면 반별로 아웃리치를 가는 것을 강조한다.

모든 아웃리치는 각 제자반별로 진행한다. 지역 선정과 모든 준비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별로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전도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기존 성도들에게도 아웃리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전도와 선교를 어렵게만 여기던 성도들에게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금광교회는 사역훈련 시 전도훈련 5주와 선교훈련 5주를 별도로 추가하여 진행한다. 사역훈련 3권의 소그룹 인도 관련 내용을 특강으로 대체하고, 구역장 모임을 통해 귀납적 소그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교육한다. 전도훈련 5주는 모든 훈련을 받고 이미 평신도 전도사역자가 된 장로 한 사람이 담당한다. 선교훈련 5주는 선교부와 협력하여 안식년을 맞은 금광교회 선교사가 강의를 맡고 있다. 이렇게 재생산을 꾸준히 강조하자 새신자가 유입되는 경로가 전도집회에서 소그룹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열매 셋 : 예배당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건축하다

마지막으로 맛볼 열매는 가장 풍성한 것이다. 금광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는 교회이다. 그 결과는 양적인 결과로도 드러나고 있다. 주일 출석 2,500명 가운데 청년대학부까지 주일학교 학생의 인원이 전체 교인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저마다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다음 세대에 재정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 현재 금광교회는 나이 비율이 원통 형태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와 장년의 숫자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금광교회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 밝은 교회이다.

금광교회는 곧 인근 지역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전할 계획이다. 옮겨가는 건물의 이름을 '청소년비전센터'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이름에서도 얼마나 금광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이전이라는 안건 앞에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금광교회는 담임목사와 전체 교인들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힘을 실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함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은 전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가정환경, 교육환경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분당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교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 돌보아야 할 영역들이 있지만, 금광교회는 청소년에 대한 비중이 다른 부분보다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목사는 성남 땅을 구약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고센 땅과 비교한다.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후손 70명이 살게 된 그 땅 말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된다. 그리고 200만 명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서 준비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고센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난 땅이다.

성남은 서울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쫓겨난 철거민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척박한 땅, 우상들이 득실대던 곳이었다.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들로 인해 변화되고 있다. 그 선봉에 금광교회가 있다. 김 목사는 금광교회를 통해서 성남 땅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부임 초기 교회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인도하는 김영삼 목사의 강의에서 그는 자신이 은퇴하기까지 20년 남았는데, 5년 동안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 300명이 배출되어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뒤 15년은 5년간의 변화와 철학을 바탕으로 교회를 확장하고 사회를 섬기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삼 목사가 말했던 5년이 지났다. 비전은 성취되었다. 이제 또 다른 비전 성취를 위해 훈련된 평신도들이 펼쳐나갈 금광교회의 사역들과 그 열매가 기대 된다.

〈김영현 목사〉